



攝  
信  
慈  
度  
心  
實  
愛  
世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라-210 (월간·년구목록 15천권)

# 東友會報

1994年(檀紀4327年)6月30日 第167號(1)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黃金朴  
明英性  
秀煥主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층2호

전화 : 733-3991 ~ 3

FAX : 733-3992

우편대체 012328-31-0525667

은행지로번호 7500891

## 장학기금 마련 唱劇公演

동문상호간 창립20주년

全一幕

## 하늘에 편 노두꽃

### 오는 7월16일 국립극장서 막올려

일어나세 일어나세!  
황토흙을 읊켜들고, 도적떼를 흙에 물어,  
평등자유 민주불꽃, 황토위에 꽂피우세.  
잡초리고 웃지마라, 철기생명 영원하다.  
마른잡초 불당기면 대산도 죽더미다.  
조선강로 넘나드는 외국놈들, 잡초불로 화장하세

이희우 작

심희만 연출

안숙선 작창

한상일 음악

감지못한 눈들이여

쉬지 않는 불길이여

살아나리 살아나리

구천에 떠도는 훈백 눈갑지 못한 저 냇들

그 와침 그 비원 불길로 솟구쳐서

타오르리 타오르리

유인 허리 끊어내고

백두산까지 타오르리



때 · 1994년 7월 16일 - 20일

토요일 · 평일 / 오후 7시 30분

일요일 / 오후 4시 30분 · 7시 30분

곳 ·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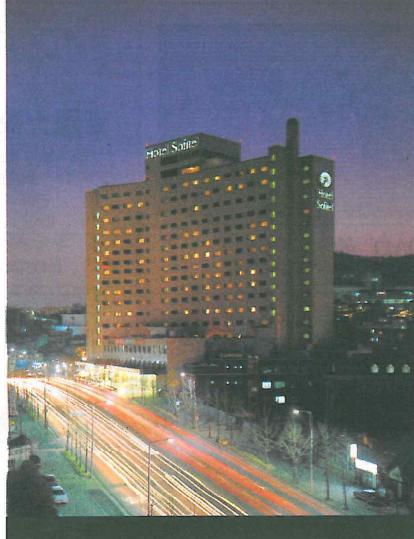
후원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KBS 한국방송공사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진흥원

국  
록  
동  
인  
명  
오는 12월  
발 간!!



# 손 님을 내집처럼 편안하게 모사는 것... 호텔 소피텔 앤배서더의 마음입니다.

1955년 창업이래 고객제일의 서비스

정신으로 서울의 호텔문화를 선도해 온  
호텔 소피텔 앤배서더는 유럽스타일의  
특급 비즈니스호텔로서 친절하고도  
세련된 서비스로 여러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판 측 부 ☎ 270-3157

객 실 부 ☎ 270-3111

식음료부 ☎ 270-3125

연회예약 ☎ 270-3123



**Hotel Sofitel**

AMBASSADOR SEOUL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6-54 ☎ 275-1101

# ‘하늘에 핀 녹두꽃’ 공연 확정

## 장학재단 설립 위한 기금 마련 위해

本會는 연말 설립예정인 장학재단의 기금 확충을 위한 공연이벤트로 창극 ‘하늘에 핀 녹두꽃’은 오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주) 대우, 현대자동차(주), (주) 유공, 대한항공, 삼아제약, 유공, 신도리코동, 기업들의 협찬과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진흥원, KBS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공연은 올해가 국악의 해인 동시에 동학혁명 1백주년임을 감안해 창극으로 꾸며져 녹두장군 전봉준의 자주자진정신을 그리게 된다. 이번 공연은 정상철(77연령) 등문 등의 출연과 심희만(77연령) 등문의 연출 이외에 주요한 스탭 모두가 등문들로 구성되어 그 의미를 깊게 하였

으며 명창 안숙선氏의 작창과 국립창극단의 열성적인 창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극장 창극단 연습실에서 맹연습중인 출연진들은 지난 6월 27일 본회 황명수 회장의 권청으로 만찬시간을 갖고 동문, 非동문이 아니라 우리 것을 사랑하고 좋은 뜻(장학재단)을 실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 벌써부터 기대에 부풀게 하고 있다.

그동안 10만동국인의 오래 숙원이었던 장학재단은 여러 이유로 설립 자체가 보류되어 왔으나 지난해 黄明秀회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다.

<해설 6면>

## 동국 인명록 7집 연말 발간

### 졸업·입학년도 병행 표기

동국인명록 제7집이 오는 12월 말 발간된다.

本會는 지난 14일 온라인에이전시社(대표=곽선영)측과 인명록 발간에 따른 외주제작과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90년 인명록 6집이 발간된 후 4년여가 경과하면서 수록한 등문 주소의 부정확성이 증가했고 89년 이후 90년에서 94년 졸업생까지 약 5년동안 2만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나 이들의 주소가 등재되지 않아 인명록의 발간목적이 제대로 살려지지 않았다.

本會는 이에따라 신속한 발간, 정확한 주소 등재, 재정압박의 쇠퇴화를 원칙으로 대행업체인 온라인에이전시社와 대행발간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계약에 따르면 기본 부수 3천부, 6개월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발간되며 제작

### “연내 장학재단 설립하자”

#### 회장단회의, 기금마련 공연 확정

本會 94년도 2차 회장단회의가 지난 6월 13일 오전 7시 프리자호텔 난초홀에서 개최됐다.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창극공연’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황명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0만 등문의 속원사업인 장학재단은 올해안에 기필코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조속한 시일내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창극공연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2시간여의 논의를 통해 회장단은 기금 마련을 위한 구체 사업으로 ‘창극 하늘에 핀 녹두꽃’을



▲금정산 산행중 자리를 함께한 부산동문

### 미술학과 전시회

전영화교수 정년기념

미술학과 등문 미술인들이 회단 원로 전영화교수의 정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운영궁 미술관에서 가졌다.

해경 전영화교수는 모교 미술학과를 창설하고 밭전시기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한국화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번 전시회에는 손연친, 이상기, 허민우동문 등 23인의 한국화와 이점운, 한정평, 진철

## 부산지부 ‘가족등산대회’

### 山行뒤 여흥으로 단합과시

부산동창회(회장=김상훈·81행원·부산일보주필)은 지난 12일 부산소재 금정산에서 동문가족등산대회를 개최했다.

50여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는 오전 10시 등문에 집결해서

간략한 행사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금정산정상의 망루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기념촬영을 한 뒤 북문을 지나 범어사까지 4시간여의 산행을 기쳤으며, 참가자 전원이 긴 코스를 완주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김상훈회장은 하산 직후 “모교의 교기와 동국대학 부산동창회라고 새긴 오색깃발을 앞세우고 금정산정상 10KM의 능선을 누비고 나니 동국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이 새로워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2시30분 하산한 등문과 가족들은 물장식당에 여장을 풀고 노래와 장기자랑이 어우러진 여흥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행사에서는 전코스를 주파해 노의장을 파시한 강경준(53정치)동문이 동창회활성화를 위해 성금을 냈으며, 열병 ‘비내리는 남포동’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강덕룡동문이 노래 실력을 보여주는 등 전동문이 동참해 상호간의 결속을 닦쳤다.

일 림

本會 사무국 여직원 정명심 양이 6월 30일자로 퇴직(의원 면직) 했음을 알립니다.

## 東友漫評

鄭雲耕



◇대성황 기대

## 장학기금 마련

# 唱劇 “하늘에 핀 녹두꽃” 大公演

### 동문여러분

本會는 10만 동국인의 숙원인

장학재단의 설립과 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창극 “하늘에 핀 녹두꽃”을

공연합니다.

국악의 해이자 동학혁명 1백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공연에 동문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문의처 : 733-3991~3, 738-0320~1

▲작 : 이희우

▲연출 : 심희만

▲작창 : 안숙선

▲음악 : 한상일

공연일시 : 1994년 7월 16일(土)~20일(水)

토요일·평일/오후 7시30분

일요일/오후 4시30분, 7시30분

공연장소 : 국립극장 대극장

\* 공연1시간前 써틀버스 운행(동대입구역 태극당)

주 관 : 동국극단

후 원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KBS

문화체육관, 문화예술진흥원

협찬처 : (주) 대우, 현대자동차(주), (주) 유공, 대한항공, 삼아제약, 한화그룹

# 끈끈한 학연, 넘치는 동국애

## 경남지부 신임회장단 선출계기로 결속다져

총회가 시작되려면 3~4시간이 남았지만 행사장이 위치한 동성을 떠나는 티운신관 9층 안편의 사무실에서는 총회준비에 여념이 없는 정민용동문 등 4~5명의 논의가 한창이다.

민3년간에 갖는 총회니 만큼 총회에 만전을 기하느라 이

른 시각부터 회장을 비롯한 일원들이 휴인오후를 이에 있어 버린다.

경남지부, 지난 88년 창원상공회의소에서 60여명의 동문이 발족시킨 경남지부는 지역으로 동편의 부산직할시와 대도시 울산을 제외한 경남, 남부, 서부지역의 동문들이 그 주축이다.

이날 총회에는 경남지부의 주축인 마산, 창원을 비롯 창녕, 진주, 충주, 고성, 하동 등지의 동문 7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총동창회에서 공수(?)된 교과이이프반주에 오랫만에 교과를 부르면서 시작된 총회에서 정민용회장은 “경남지부의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부족한 점이 있다해도 더 깊은 예정으로 참여해 줄것을 당부.

임원진 소개와 총동창회 정



연도총무의 총동창회 활동 및 가지여 동문활동상 소개가 끝난 후 회칙개정에着手했다.

회칙개정에 있어서는 하종근(창원대 교수) 동문의 제안인 명예회장제 신설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무1명 보강인이 참석동문들의 박수 속에 가결되었다.

임시의장에 참석동문중 최고참인 김승곤(46入學 50년卒)同會고문을 추대한 참석자들은 전형위원회를 재택해 서부지역과 중동부지역으로 나누어 전형위원을 선출했고 이를 통문들은 30분간의 휴식시간을 이용 구수회의에 돌입했다.

회의직후 전형위원회들은 신임회장에 최원우(81경원) 등문을 선임하고 정민용전임회장은 명예회장에 추대되었다.

신임 회장은 “학연으로 맺어졌던 시간으로 회귀하는

순간의 편안한 모임”이라고 전제한뒤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쇠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40년이 넘는

時空을 초월해 서로 동국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경남지부, 시역적으로

마산·창원을 중심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날 총회였다.

단하나 아쉬운 점은 지역적 연계를 공고히 할 개개의 부족과 지역적 조직적 재정적 측면의 중추인 마산·창원이 Work town으로 주말이면 동문규암이 일들나는 인적결속문제의 해결을 신임 회장에게 기대해 본다.

한편 이날 신임된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장=정민용(49문학)

▲회장=최원우(81경원)

▲부회장=유홍기(54국문)

최민식(64법학) 정덕영 김만식(63경영) 공삼진(53법학)

강희근(66국문) 이철재(53정치)

▲감사=김종학(63상학)

홍진기(67국문)

▲총무=정영호

## 퇴임·원로교수 간담회

### “대학발전 적극 동참” 당부

本會는 지난 4일 黃明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논평동 건설회관앞 고려정에서 11명의 정년퇴임 교수들과 50여명의

원로교수 등 60여명을 초대해 학교발전을 위한 대화의 모임을 가졌다.

이순용(58법학) 교수회장이

주선한 이 행사에는 송석구 부총장과 김갑주 경주캠퍼스 부총장·김인홍 의료원장·김인제 경상대학장과 本會 박의주 상임부회장·김영환 사무국장·박수천 감사가 참석, 3시간 가량 이야기꽃을 피웠다.

황명수회장은 ‘최근 대학발전을 위해 총동창회가 석·간접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고교 발

정기총회 개최는 10월 중순께

## 법대동창회 장학금 모금전개

법대동창회(회장=林德圭·60법학)가 지난 17일 저녁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의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黃明秀(53정치) 本會 회장·崔炯佑(53정치) 내무부장관을 비롯, 李衍澤(61법학) 前 노동부장관, 張明根(64법학) 前 법제처차장, 申相和(64법학) 부산고검찰장, 金光得(62법학) 항만청장, 白奉欽(61법학) 학장, 李淳用(58법학) 교수협의회장, 白永哲(62법학) 관동대총장, 金鍾一(58법학) 前 경찰대학장, 金東正(57법학) 변호사, 金喜玉(72

## 성남동문회 현판식 가져

### 김웅창 동문 사무실 제공

성남동문회(회장=김종태·60국문·분당구청장)는 지난달 10일 정오 수정구 대평동에서 현판식을 갖고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사무실은 김웅창(60정치·신일광평대표) 사무국장이 여행사의 일정을 제공해 동문회현판을 걸게 되었다.

김종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사무실 부재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김웅창동문의 노고로 사무실을 마련한 만큼 동문회 활성화에 더욱 주력하자”고 역설했다.



전을 위한 원로교수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전종호 교수는 ‘현직과 전직 교수들의 대화모임은 학교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경찰행정학과 서재근 교수는 ‘정년퇴임 교수들의 모임’을 제의했고, 의학과 죄의학·한의학 교수는 ‘의대발전의 정

기발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 새회장에 강기진동문

### 국문학과 동문회

국문학과동문회는 지난달 26일 보교나향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강기진(59국문) 동문을 선출했다.

# 東國人名錄은 여러분이 만듭니다

## 각급단위 東友會의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지역별, 직장별, 학과별, 기별 각급단위 동우회는 총동창회 조직의 근간입니다. 오는 12월 발간을 목표로 한 동국인명록 제7집을 이러한 조직활동을 빠짐없이 수록하기 위해 동문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각급단위 조직의 회장이나 현황을 본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보낼곳>

110-300 종로구 흥이동 197-28  
백상빌딩 3층 동국대학교총동창회

동우회 명칭	연락주소·전화			
회장	졸업구분	직장및 직위	직장전화	자택전화
총무	졸업구분	직장및 직위	직장전화	자택전화



# 장학재단 설립으로 후배양성

## 창극공연·광고협찬 통해 기금 마련

### 本會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수익성 이벤트

이번 공연의 의미는 단순한 기금의 학보가 아니라 일하는 동창회,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한 동창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동창회가 동문들의 회비나 특정기부금에만 의존하는 구태에서 탈피해 보다 능동적으로 사무국 업무 전반에 마켓팅 개념을 도입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사무국 운영의 험화화, 재정의 원활성을 꾀한다는 것이다.

본회 시무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각종 기금 확충의 실질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이번 창극공연이다.

지난 6월 13일 회장단 회의에서 수차 논의되었던 공연이벤

트를 '창극'으로 확정하자마자 곧바로 공연제작에 박차를 가해 본회는 설립만(77연영) 동문을 대표로 한 동국극단의 설립과 대우, 현대백화점, 유공, 대한항공 상아제약, 한화그룹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광고 협찬에 대한 협조 요청에 발벗고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기업의 협찬금과 공연 수익금은 제작실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이 장학재단 설립 기금으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공연제작 방침과 함께 공연물의 작품 성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인데 KBS 일급작가로 활약중인 이희우 작가의 집필과 명장 안숙선 여사의 작창, 세종문화회

관 상임연출 지도위원인 심희만(77연영) 동문의 연출, 명창 윤희진씨를 비롯한 국립창극단원의 열창과 정상철(77연영) 동문을 비롯한 동문연예인의 열연으로 작품성을 높여 창극의 새로운 재미와 함께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 분당 한방병원 기공식

### 1백 병상 규모로 95년말 완공

동국분당한방병원기공식이 본회 황병수 회장을 비롯한 오득원재단이사장·민병천총장·최종태분당구청장 등 학교당국 관계자와 지역구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거행됐다.

김인홍의료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92년 3월 의료시설 용지매입을 시작으로 병원 신축주전계획·설계를 거쳐 지난달 12일 주식회사 서평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발원분당동 후단상에 오른 오득원이사장은 "이념적인 종교교인이 아니라 실질적 구원이 될 수 있는 부처님의 구원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 치사했다. 한편 황회장은 축사를 통해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신축되는 병원은 연간 평 2

천2백45평에 지상5층 지하2층 규모로 병상 1백개와 강의실↓ 교수연구실등의 주요시설이 들어서며, 공사기간은 약 1년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 개교88주년 기념식

모교 개교88주년 기념식이 지난달 6일 오전 10시 30분 황병수 본회회장·오득원이사장·민병천총장을 비롯한 내외인사·교직원·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강당에서 열렸다.

#### 마당회 야유회

##### 18일 광탄계곡서

동국미당회(회장=이무용)는 지난 18일 광주군 광탄면 광탄계곡에서 야유회를 개최했다. 56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 날 야유회는 모처럼 도심을 벗어난 야외에서 동문호에를 돋히 했다.

## "인명록제작, 동문협조 없이 안된다"

### 정확한 신상등재·재정최소화가 관건

1908년 명진학교 졸업생부터 1994년 최근 졸업생까지 명실상부한 10만 동국인맥의 산기록인 東國人名錄 제7집 발간 작업이 시작됐다.

보다 많은 동문의 정확한 신상등재와 본회 재정압박 최소화를 목표로 88년 성상을 쌓아온 10만 동국인맥을 정리하게 될 6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말 동국인의 밤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76년 4집과 84년 5집 그리고 90년 6집 발간에 이어 일곱 번째인 이번 인명록 발간은 지난 6집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고 정확한 신상등재를 위해 처음으로 전문대행사인 온라인에이전시와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해 본격적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인명록 작업을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로 한 작업이다.

그 동안 꾸준히 각 단위동문회의 파악과 개인신상 확보에 주력해 온 본회사무국으로는 10만동문의 인적사항을 동시에 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동문들의 자발적 협조가 절실했다.

따라서 동문 및 각급단위조직 동문회에서는 동문신상카

생리케 할 것이다.

일정성 시간에 쫓기다보니 각지부지회의 조직적 활용에 이失利을 남지만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회보와 KBS의 스튜디오 광고 등을 통해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본회 사무국으로서는 대기업의 협찬속에서 동국대학교의 명예를 건 사업이니 만큼 관동동원에 있어 동문들의 자발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동창사업에 있어 기본적 사항이기는 하지만 본회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수익성 이벤트사업이라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동문연예가 참여해 공연관람등을 적극적 성원이 절실히 한다.

모교 입시요강 확정

모교 교무처는 대학별고사 일자를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과 차별화해 내년 1월 9

일에 전기로 치르기로 하는 등 95학년도 입시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드나 회원주소록을 속속한 시내에 본회로 송부해야 하며 개인의 변동사항은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어야 한다.

기존의 인명록 6집을 바탕으로 각기업의 재직동문회와 공문서를 통한 확인, 신문광고와 우편·전화·팩스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동문 신상을 파악해 인명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 자체가 본회와 보교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10만동문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연말 설립예정인 장학재단의 출범과 운영은 물론 1백주년 새동국건설을 위해서도 동문들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하 고 그 기초적인 환경이 정확한 신상파악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명록 7집은 6집작업과 미친가지로 컴퓨터입력작업을 병행하는데 양쪽으로 방대해진 동문 관리에 신속히 대처하고 개교 1백주년을 앞두고 더욱 발전하는 교세에 부응하여 동문과 동문, 모교와 본회를 연결하는 기교역할은 물론 결속을 다지는 기틀이 될 것이다.

동문과 동문의 입과 귀를 통해, 또 각종 모임을 통해 동국인명록 제7집 발간작업이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자신만의 신상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동국인들의 협조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했던 시점이다.

세종화랑

代表 朴明奎 (93행원)

(一名 영환)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8-3 (백상빌딩 앞)

전화 : 722-2211(代), 722-2212~3

FAX : 738-2210



• • •  
**호남의 금강  
 대둔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립공원 대둔산은

**봄 운해**

**여름 신록**

**가을 단풍**

**겨울 설경** 을 자랑하는

**仙景입니다**

경북의 추풍령과 전북의 변산반도를  
 한눈에 볼수있는 그곳

**시원한 바람과**

**깨끗한 약수로**

**世俗을 씻어내는 그곳으로**

**양지대둔산 케이블카가**

**여러분을 모십니다**

## **양지 대둔산 케이블카**

회장 최대희 (82·행원)

전남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 23-30

전화 (0652) 253-6621~3



선창산업주식회사  
Sunchang Corporation

나무와 함께 35년—선피니처에서 선우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종합목재산업의 역사는 곧 선창산업의 역사입니다.

나무와 함께 35년—가정용 가구, 사무용 가구, 합판, 제재목, 하드보드, MDF, Flush Door, 목공기계 등의 생산을 통해 우리나라 종합목재산업을 이끌어 온 선창산업이 있습니다.

나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선창산업.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선피니처에서 신감각의 선우드가구까지 좋은 가구로 사랑받아 온 바탕에는 나무와 함께 35년 와길을 걸어 온 선창산업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나무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드는 좋은가구—선우드가구



선피니처의 명성 그대로

**선우드가구**  
sunwood

